

---

#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

---

2019. 11.

금 융 위 원 회

## I. 금융권 일자리 현황 ..... 1

1. 금융권 고용동향 .....1

2. 금융회사 임직원 고용현황 .....2

[참고 1] 업권별 고용동향 .....3

[참고 2] 은행권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.....4

## II. 최근 금융권 일자리 여건 변화 .....7

## III. 향후 대응방향 .....10

1.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 창출 .....10

2. 금융권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.....11

3.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.....12

[참고 3]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·개선 노력 .....14

[참고 4]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·개선노력 ·20

# I. 금융권 일자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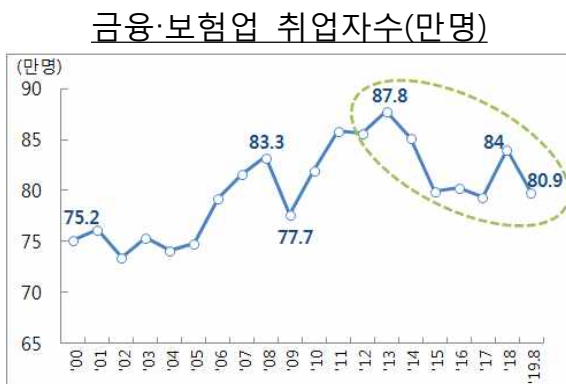
## 1 금융권 고용동향

### (1) 금융권 전체 (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)

□ '19.9월 기준 금융·보험업 취업자수는 80.9만명(통계청)

○ IT 발달, 비대면거래 증가\* 등에 따라 감소세

\* 업권별 점포수(연도말) : ①은행 ('15) 7,445 ('16) 7,280 ('17) 6,972 ('18) 6,953  
②보험 ('15) 6,959 ('16) 6,850 ('17) 6,481 ('18) 6,170



\* 자료 : 통계청



\* 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

### (2) 업권별 분석 (금감원, 업권별 금융협회)

※ 금감원 및 각 협회가 금융회사로부터 분기·반기·연도별로 취합한 통계로, 조사방식, 금융업 범위 차이 등으로 통계청 통계(79.8만명)와 차이(세부내용 참고 1)

□ '18.12월 기준, ①금융회사 임직원 38.4만+②설계사·모집인 44.7만명

○ 금융회사 임직원은 은행업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, 설계사·모집인의 경우에도 감소 추세

< 금융권 취업자수 추이(만명, 연도말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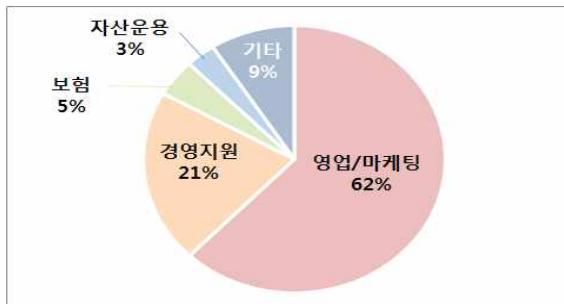
	'15년	'16년	'17년	'18년
금융회사	40.0	39.7	39.6	38.4
은행	13.8	13.5	13.3	12.4
비은행	26.2	26.2	26.3	26.0
설계사·모집인	47.2	46.4	45.8	44.7
총 합계	87.2	86.1	85.4	83.1

## 2 금융회사 임직원 고용현황 (금융연\*)

\*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'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' 결과(설계사·모집인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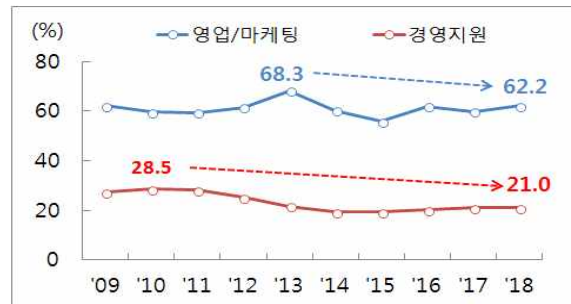
- (직무) '18년말 기준, 상당수가 영업·마케팅(62%), 경영지원(21%) 분야에 종사하나, 해당 직무 종사자 비중은 감소 추세

임직원 직무별 비중(% , '18년)



\* 자료 : 금융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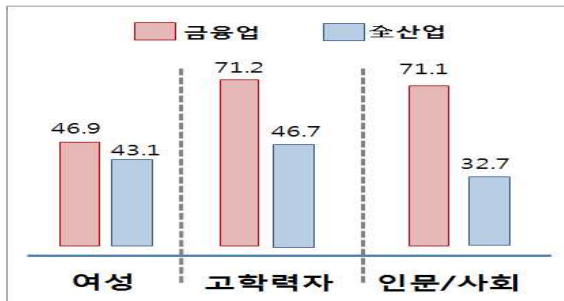
직무별 비중 변화



\* 자료 : 금융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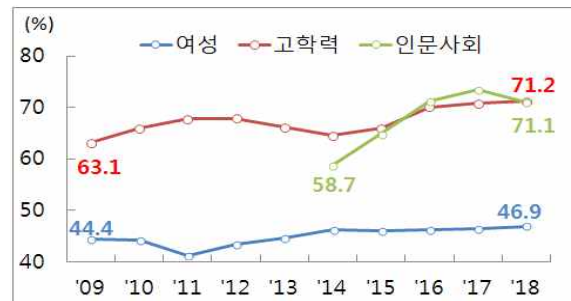
- (근로자 특성) 여성, 대졸이상, 인문·사회계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금융업 vs 쏜산업 비교(% , '18년)



\* 자료 : 금융연, 통계청, 한국교육개발원

근로자 특성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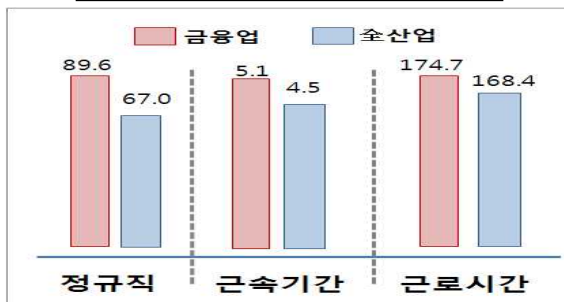


\* 자료 : 금융연

※ 전공은 집계분류 변경으로 14년 이후만 표기

- (근로여건) 정규직 비중 및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음

쏜산업 vs 금융업 비교('18년)



\* 자료 : 금융연, 통계청, 고용부

※ 정규직(%), 근속기간(년 '16년), 근로시간(시간)

근로여건 변화



\* 자료 : 금융연

※ 근속기간의 경우 '16년에 1회성으로 측정

## 참고 1

## 업권별 고용동향

- **(개황)** '18년 4분기 기준 금융산업의 전체 취업자는 83.1만명\*으로, ①금융회사 임직원 38.4만명+②설계사·모집인 44.7만명

\* 금감원 및 각 협회가 금융회사로부터 분기·반기·연도별로 취합한 통계로, 조사방식, 금융업 범위 차이 등으로 통계청 통계(79.8만명)와 차이

- **(임직원)** 금융투자업 임직원수는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은행·보험업 임직원수 감소 등으로 전체 임직원수는 소폭 감소

- **(은행·보험)** 비대면거래 활성화로 인한 점포수 감소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(3년전 대비 은행 △1.5만명, 보험 △0.1만명 감소)

- **(금융투자)** 자산운용사 진입증가\* 등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 추세 지속(3년전 대비 +0.4만명 증가)

\* 자산운용사 기업체수(4분기) : ('15) 93 ('16) 165 ('17) 194 ('18) 243  
자산운용사 임직원수(4분기) : ('15) 5,259 ('16) 6,474 ('17) 7,337 ('18) 8,234

- **(설계사모집인)** 판매채널 다양화, 고용형태 특수성 등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대비 종사자수 감소폭이 더 큼

- 특히,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속설계사의 경우 보험 대리점으로 이전 등으로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

금융권 취업자수 추이(만명, 연도말)

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5→'18년
은행	13.8	13.5	13.3	12.4	△1.4
비은행	26.2	26.2	26.3	26.0	△0.2
보험	6.1	6.0	5.9	6.0	△0.1
금융투자	4.4	4.5	4.7	4.8	+0.4
상호금융	12.1	12.3	12.4	12.0	△0.1
기타	3.5	3.4	3.3	3.2	△0.3
<b>임직원 합계</b>	<b>40.0</b>	<b>39.7</b>	<b>39.6</b>	<b>38.4</b>	<b>△1.6</b>
보험설계사	43.8	42.8	42.8	42.3	△1.5
전속	20.3	19.7	18.9	17.9	△2.4
대리점	23.5	23.1	23.9	24.4	+0.9
카드모집인*	2.2	2.4	1.8	1.3	△0.9
대출모집인	1.2	1.2	1.2	1.1	△0.1
<b>설계사 등 합계</b>	<b>47.2</b>	<b>46.4</b>	<b>45.8</b>	<b>44.7</b>	<b>△2.5</b>
<b>총 합계</b>	<b>87.2</b>	<b>86.1</b>	<b>85.4</b>	<b>83.1</b>	<b>△4.1</b>

\* 겸직비중이 높은 제휴모집인을 제외한 전업모집인 종사자수

◇ '18년말 기준, 국내은행의 직접 고용인원은 10.1만명,  
파견, 1사전속계약 등을 통한 연관산업 고용인원은 3.1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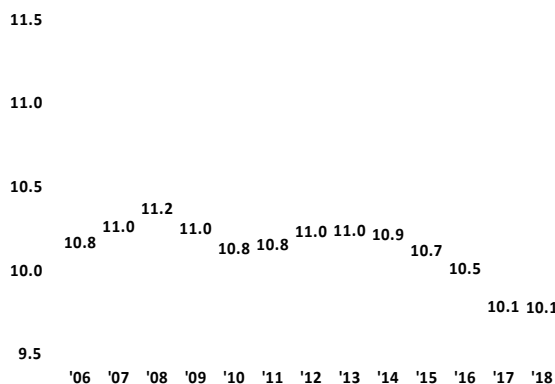
## 1 직접 고용 : 10.1만명

□ '18년말 기준, 국내은행\*의 직접 고용인원은 10.1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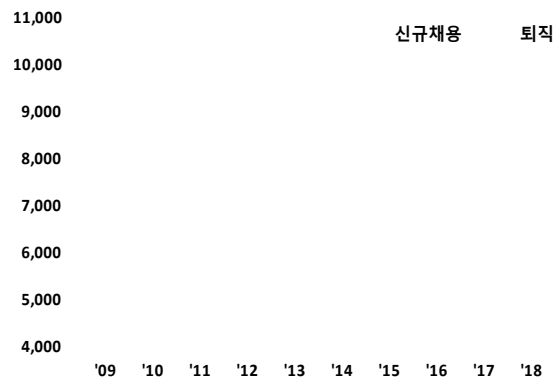
\* 산은, 기은, 수출입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제외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고용 감소추세이나, '18년 시중·지방은행 신규채용은 반등('17년 4,748명→'18년 6,088명)

국내은행 직접 고용인원 추이(만명)



시중·지방은행 신규채용(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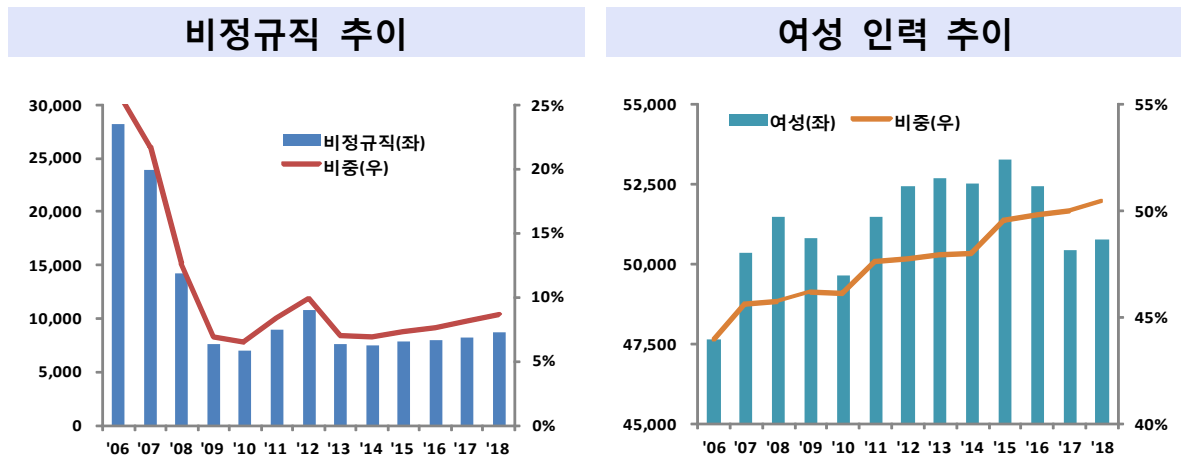
□ 직접 고용인원의 항목별 구성

- (직무) 영업부문 인력이 가장 큰 비중(70.6%)을 차지하고, 경영지원(7.0%), IT(4.4%), 상품개발(4.2%), 경영전략(1.8%) 順

- 다만, 경영효율화 등으로 영업·경영지원 인력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비대면거래 증가 등으로 IT부문 인력은 소폭 증가

\* 영업부문 인력(연도말, 천명): ('15) 78.1 ('16) 76.6 ('17) 72.0 ('18) 71.1  
경영지원 인력(연도말, 천명): ('15) 7.6 ('16) 7.1 ('17) 6.9 ('18) 7.1  
IT부문 인력(연도말, 천명): ('15) 4.4 ('16) 4.2 ('17) 4.2 ('18) 4.4

- **(비정규직)** '18년말 비정규직은 8.1천명으로 고용인원의 8.6% 수준이며, '06년(25%)에 대비 비중이 낮아짐
- **(여성)** 여성인원은 5.1만명으로 전체 고용인원대비 50%를 상회하며, '06년(44%) 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



## 2 연관산업 고용효과 : 3.1만명

□ '18년말 기준, 측정대상 국내은행의 연관산업\* 고용인원은 3.1만명

\* 파견 계약 등을 통해 상시 유지하고 있는 고용(예: 민원대응, IT 외주, 대출모집인 등)

- 민원대응, IT 외주인력 중심으로 고용증가('15년 대비 +0.1만명)

\* 은행 연관산업 고용인원(연도말, 만명): ('15) 3.0 ('16) 3.1 ('17) 3.0 ('18) 3.1

※ 고용감소 추세를 보이는 대출모집인(△0.1만명) 제외시, '15년 대비 +0.2만명 증가

□ **(구성)** 콜센터 등 민원대응 인력(20.9%)과 경비 등 보안 인력(20.5%) 비중이 크고 IT(13.9%), 대출·카드모집인(11.9%), 채권추심(2.7%) 順

-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따라 민원대응 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, IT 업무 증가 등에 따라 IT 외주인력도 증가('15년 대비 각각 +0.1만명)
- 반면, 대출·카드모집인은 온라인을 통한 직접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('15년 대비 △0.1만명 감소)

※ 은행권 일자리 창출·개선 사례는 [참고 3] 참조(14~19p)

### 3 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

- '18년중 국내은행의 신규 기업대출 취급액은 206.1조원으로, '15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'18년에 큰 폭 증가(전년 대비 +25.2조원)
  - \* 신규 기업대출 취급액(조원): ('15) 228.0 ('16) 193.7 ('17) 180.9 ('18) 206.1
- '18년 신규 기업대출 취급액은 주로 제조업(58.8조원), 부동산업(48.9조원), 도매 및 소매업(29.5조원) 분야로 공급됨
-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(45.7%), 사업시설관리업(46.0%), 금융·보험업(28.6%) 등 상대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에서 '18년 신규 기업대출 취급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

※ 주요 업종별 고용유발계수\*('17년 기준, 한국은행)

\*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·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

구 분	제조업	부동산	도소매	전문과학 기술서비스	사업시설 관리업	금융보험	건설업	숙박음식	평균
계 수	5.6	3.7	10.8	10.1	15.9	7.0	8.2	10.4	7.6

- 해당 신규 기업대출 취급액은 '18년 경제전체에서 약 1.3만명\*의 추가 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

\* 206.1조원 \* 0.065명/10억원

[※ KDI의 연구결과('10년)에 따르면 제1금융권 신규자금공급 10억원당 1년간 0.065명의 신규고용을 창출]

#### ※ 분석결과 이용상 유의점

- 과거 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으로, 대출의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참고할 필요
- 또한 대출을 통한 고용증가뿐 아니라, 고용증가에 따라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 대출이 증가하기도 하므로, 단순히 대출 증가에 따라 고용이 증가한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려움



## II. 최근 금융권 일자리 여건 변화

### 1 비대면거래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판매채널 인력 수요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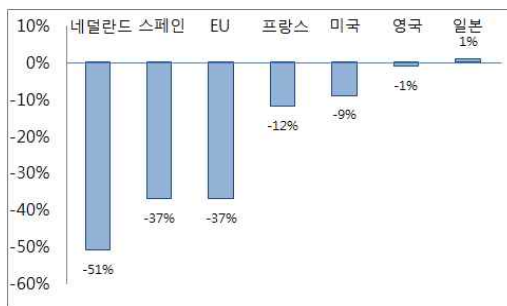
- IT 발달, 비대면거래 확대 등에 따른 지점축소로 인한 전통적 판매채널 인력 감축은 전세계적 현상

※ 씨티그룹의 은행의 인력-채널 변화 관련 전망("Bank of the future", '18.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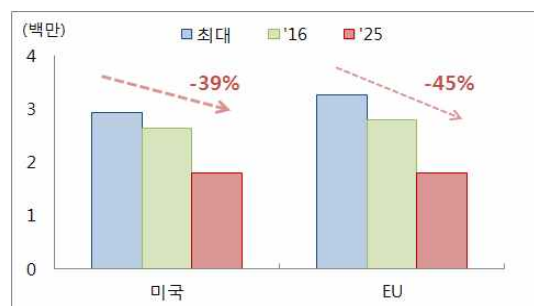
① 2025년, 은행 지점수는 '14년 대비 30~50% 감소 전망

② 2025년, 은행 전업인력은 금융위기 이전 대비 40~50% 감소 전망

성인 1인당 상업은행 지점수 변화('09→'16)



은행 전업인력 규모 변화



### 2 금융·IT간 융합에 따라 금융회사 인력수요의 구성 변화(인문·사회→IT)

- (수요 증가)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관련 조직 확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IT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

#### 1 금융회사 인력 구성 중 IT 인력 증가 ("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닌 IT 회사"\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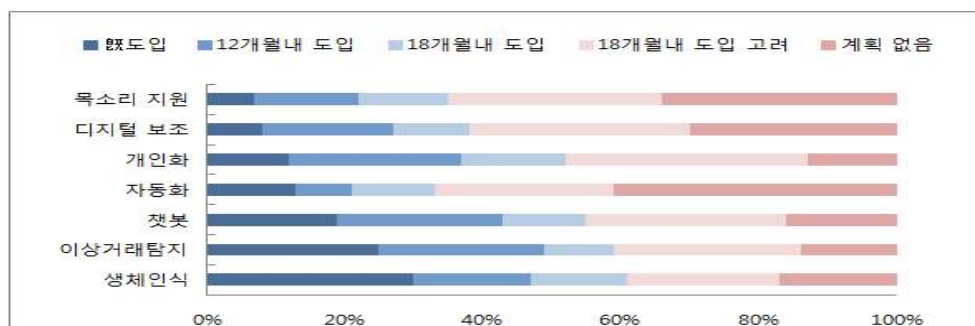
\* 골드만삭스 전 CEO 블랭크페인 JP모건 전 CFO 마리안 레이크 등

① JP모건 전체 인력의 20%가 IT 인력

② 골드만삭스 신규채용의 40%가 IT 인력

#### 2 금융회사의 AI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IT 인력 보충 필요

美 금융회사가 도입중인 AI 솔루션



\* 자료 : Citi("Bank of the Future", '18.3월)

- (공급 부족) 단기간에 육성이 어려운 IT 숙련인력 공급은 부족하며, 기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IT 교육환경도 미흡

※ 디지털 인력 관련 시중은행 등 관계자 인터뷰 주요 발언(금융연, '18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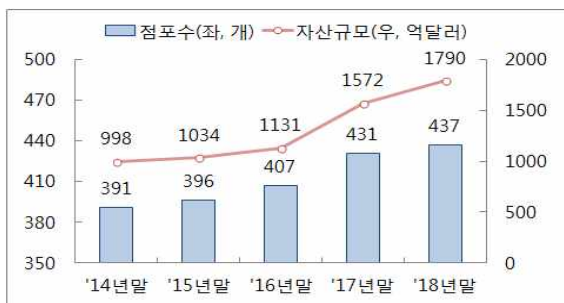
- ▶ "IT 숙련인력을 금융회사들이 일시에 구인하면서 채용목표를 채우기 어려움"
- ▶ "금융회사 외부 IT 연수 프로그램은 금융규제 등 금융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며, 1주일 내외 입문과정이 대부분이고 빅데이터 등 핵심과정은 많지 않음"

### ③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증가

#### ① (저금리)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에 따라 기존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의 변화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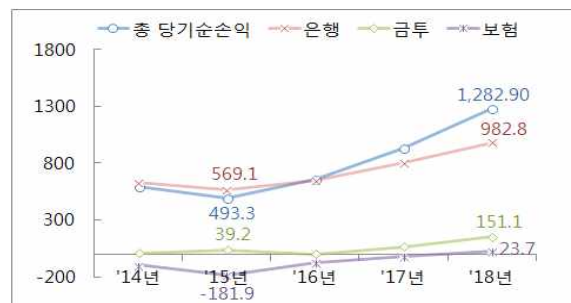
- 해외시장 진출, 자본시장 활용, 디지털 혁신 등 새로운 수익 창출원 발굴 불가피

금융회사 해외점포수 및 해외점포 자산



\* 자료 : 금융감독원

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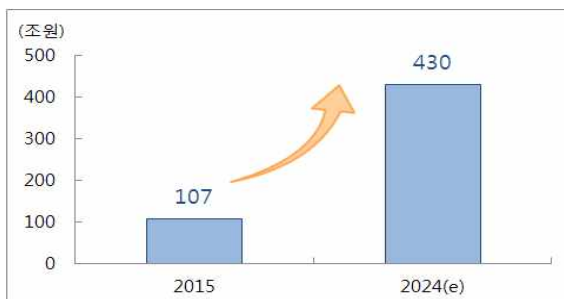


\* 자료 : 금융감독원

#### ② (고령화) 신탁·연금,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의 유동화, 상속·가업승계 관련 상품 등 고령층\*에 특화된 금융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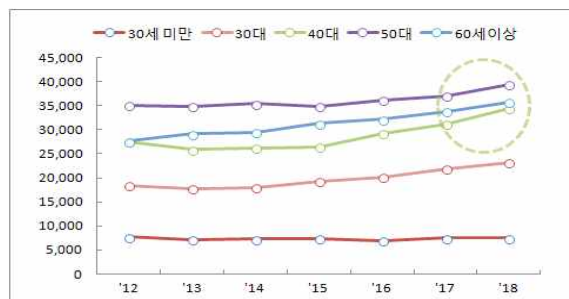
\* '00년 고령화사회(고령인구 7.2%) → '18년 고령사회(14.3%) → '26년 초고령사회(21.1%)

퇴직연금시장 규모



\* 자료 : 미래에셋연구소

가구주 연령별 가구순자산 추이



\* 자료 : 통계청

- ③ (핀테크) 전통적인 금융회사와는 구별되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금융권 인력수요 발생

※ 금융위의 **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한 효과**(서비스 출시 11개 기업 '19.9월말 기준)

- ▣ (일자리)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전 **1,175명** → 지정 이후 **1,352명(+177명, 15%)**
- ▣ (투자)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신규 투자 총 **157억 원** 유치
- ▣ (신규 가입자)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신규 가입자 약 **30만 명**
- ▣ (해외진출) 4개 핀테크 기업이 해외진출 예정(한국NFC, 디렉셔널, NHN 페이코 등)

- ④ (기술평가·내부통제) '기술(Tech)'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술 가치 평가인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, 금융의 복잡화 등으로 내부통제·위험관리가 강조되며 관련인력 수요 증대
- ⑤ (노동환경)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감축 및 추가 고용(job sharing)의 필요성도 제기

#### 4 보험설계사 및 대출·카드모집인의 고용변동 가능성

- 보험설계사 및 대출·카드모집인은 금융권 전체 일자리의 50% 이상으로 추정
  - \* 금융권 일자리 약 80만개 중 44.7만명('18년말 기준)의 설계사·모집인이 존재. (다만,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설계사, 부업종사자 등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움)
- 설계사·모집인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직종으로,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라 고용변동 가능성이 큼

※ [참고] **보험설계사 및 대출·카드(전업)모집인 실태조사 결과**('17년, 노동연)

\* 설계사·모집인, 학습지교사,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대상 표본설문조사

**① (근로시간) 상당수가 주30시간 이상 근로 중**

\* 주30시간 이상 근로(%): (설계사)87.2 (대출)85.6 (카드)71.9

**② (평균소득) 대출·카드모집인의 경우 평균소득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**

\* 월소득 200만원 미만(%): (설계사)40.0 (대출)87.5 (카드)85.5

(※ '19년 2/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: 470.4만원)

**③ (전업여부) 전업 비중이 높고 겸업인 경우에도 대부분 설계사·모집인이 주업**

\* 전업 근로(%): (설계사)79.7 (대출)83.6 (카드)72.3

\* 겸업시 주업(%): (설계사)67.3 (대출)73.7 (카드)54.4

### Ⅲ. 금융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방향

#### 1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 창출

- 지속적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 지원

##### ※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

- ▶ (경쟁도평가) 객관적·중립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 결정
- ▶ (신규인가) 온라인전문 보험회사 본인가('19.10월), 부동산신탁사(3개) 출범('19.10월),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등
- ▶ (제도개선) 혁신 ICT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('19.1월),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마련('19.6월) 등
- ▶ (스몰라이선스) 과도기·적응기간으로서의 스몰라이선스 도입 검토

- 핀테크 기업 스케일업\*,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출현 및 성장 지원

\* 핀테크기업의 테스트비용 지원, 업무 공간 제공, 교육, 컨설팅 및 투자활성화 등

- 마이데이터 산업(My Data)\*, P2P금융 등 금융분야 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

\* 개인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회사(은행, 보험, 카드, 금투, 등)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고, 신용·자산관리까지 지원하는 산업

- 新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검토

- 신남방국가 등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 금융당국과 고위급 회담,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 진출 기반 마련

##### 주요 사례①: 핀테크 데모데이

- (개요) '핀테크 데모데이 in 자카르타('19.9월), 하노이('19.10월) 개최
- (주요내용) 한국과 인나·베트남의 핀테크 기업이 전시부스 및 발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고 상호국 진출계획을 공유

##### 주요 사례②: 금융회사 해외진출

- (개요) ○○은행은 '15년 이후 글로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,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영업망 확대 중  
⇒ 글로벌 영업점('15년 200개→'19년 443개)이 증가함에 따라, 현지채용뿐만 아니라 국내직원 파견('15년 146명→'19년 186명)인원도 증가

- 신탁시장 활성화 등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추진 검토

## 2 금융권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

- ① (재교육) 금융권 연수기관, 대학교,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IT 및 핀테크 관련 교육 지원 추진

### 주요 사례 ①

- (개요) ○○은행은 디지털 역량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교에 디지털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
  - (주요내용) 금융실무와 학문·이론을 결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금융그룹 내 직원 중 등록자를 받아 석사학위 수여
- ⇒ '17.9월 개설 이후, 30명이 디지털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

(사례) '17년 석사과정 입학당시 영업점에 근무했던 과장 A와 차장 B는 석사 학위 취득 후 각각 글로벌디지털팀, 블록체인Lab 등 디지털관련 부서로 발령

### 주요 사례 ②

- (개요) 지자체는 핀테크 등 금융전문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중
- ① (서울시) 금융·IT분야 양방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핀테크아카데미 운영
- ⇒ '18.2월 출범 이후 총 115명이 교육과정 이수(19.8월말)
- ② (부산시) 부산지역 특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운영
- ⇒ '14.9월 출범 이후 연 평균 3,000명 교육과정 이수

- ② (전직·이직) 고용부 전직지원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한 금융권 내 이직·전직 지원 확대방안 검토

### 주요 사례 ①

- (개요) 고용부의 전직지원 서비스 활용
- (주요내용) 1:1 맞춤 재취업 및 전직 컨설팅,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등

### 주요 사례 ②

- (개요)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한 금융권 특화 전직지원
- \* 전국 13개 센터 중 1개소는 금융부분 특화센터로 운영 중('16년~, 서울)
- (주요내용) 전직준비-개인별컨설팅-직무심화 과정을 통한 전직지원

③ (퇴직자) 금융업권 퇴직자의 경험·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방안 검토

주요 사례 ①

- (개요) 신용회복위원회 “서민금융 종합상담역” 채용
- (주요내용) 만55세 이상 15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과중 채무자 금융상담, 채무조정 전 단계의 종합신용상담 등 업무수행  
⇒ ‘18년 7명에서 ‘19년 30명(+23명)으로 증원예정

주요 사례 ②

- (개요) 상호금융권 “컨설팅역” 채용
  - (주요내용) 10년이상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상호금융 조합 건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취약부문 현장점검 및 내부통제 지도  
⇒ ‘19년 현재 컨설팅역으로 136명 채용 중
- ※ 그 외에도 ‘채무조정 서비스업’ 등이 도입될 경우, 금융권 은퇴자가 본인의 경험·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

### 3 실물경제의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

① (혁신금융) 벤처·혁신부문 성장 지원,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

- (자본시장)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
- (정책금융)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·중소기업에 대한 대출·투자 활성화 추진

주요 사례 ①: 마켓컬리 (산업은행)

- (개요) 신선식품 배송·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컬리는 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 등 통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6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
⇒ 산업은행에서 최초 투자 당시(‘16년) 40명이었던 임직원수가 ‘19년 상반기 기준 280명으로 증가(3년여만에 7배 증가)

주요 사례 ②: 난닝구 (기업은행)

- (개요)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 1세대가 설립한 (주)엔라인(“난닝구 닷컴”)에 대해 기업은행이 투자(20억원)·융자(150억원) 등 지원  
⇒ 기업은행에서 최초 투자했던 ‘17년(임직원 수 260명)에 비해 임직원 수가 320명으로 확대(2년만에 23% 이상 확대)



- ② **(창업기업)** 청년 창업인프라 구축,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요인이 될 수 있는 창업기업 지원 확대

**주요 사례 ①: 혁신창업 플랫폼 FRONT 1**

- **(개요)** 금융위는 혁신창업 플랫폼으로 **국내 최대 규모인 FRONT 1** 조성 추진 중(지상 20층 규모)
- **(지원내용)** 금융·멘토링 등을 종합지원(one-stop solution)하고,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



**주요 사례 ②: D.Camp의 스타트업 지원**

- **(개요)** 은행권이 출연(5,000억원)하여 설립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.Camp를 통해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 자금 및 창업공간 등 지원
- **(성과)** 핏핏(스마트폰을 이용한 반려동물 건강진단), 집토스(전·월세 중개 플랫폼), 와그트레블(액티비티 예약 플랫폼) 등 우수 스타트업 발굴·지원  
⇒ D.Camp 지원에 따라 대상 스타트업 **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**\*

\* (핏핏) 4→40명, (집토스) 7→40명, (와그트레블) 7→100명

- ③ **(지역·자영업자)** 일자리 감소 등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

- **(지역형 일자리)** 제조업 불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-금융기관-勞使간 상생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

**주요 사례**

- ① **(광주형 일자리)**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('19.1.31)을 체결하고, 산은의 지분투자자로 경형 SUV 생산공장(광주글로벌모터스) 설립  
⇒ **직접고용 1천명(정규직) 및 간접고용 포함 7,600명 일자리 창출**
- ② **(대구형 일자리)** 이래AMS 노사, 대구시, 산업·하나대구은행, 경사노위는 자동차 부품업체 이래AMS 지원에 합의  
⇒ 270개 협력업체의 **4만 3천여명 고용 안정 및 신규 일자리 1,200명 창출**

- **(자영업자)** 非금융정보 등을 활용하여 영업력·성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확대 방안 검토

**주요 사례**

- **(개요)** ○○은행은 핀테크업체 □□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카드매출 정보 등 非금융정보를 활용한 자영업자 대출상품 출시 검토 중
- **(주요내용)** 非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대출가능 여부, 한도조정 등 결정

**[1] 채용·고용 개선 노력**

- ① **(채용박람회)** '17년 이후 매년 은행, 보험, 금투, 여전, 저축은행, 금융공기업 등 쏠금융권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개최
- 특히, 채용면접을 실시한 6개 은행\*은 참가자 중 30% 이상을 우수면접자로 선발하여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 제공
- \*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
- ② **(채용절차 모범규준)** 은행권 공동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수립
- 신규 채용 시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성별, 나이 등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채용공정성 제고
- ③ **(직원 재교육 및 재배치)**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춰, 직원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해 IT-디지털 인력 확대 추진
-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디지털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디지털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
  -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인력 수요변화에 따라 교육 등을 통해 대면채널 담당 직원을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직무 전환

**주요 사례**

- **(개요)** ○○은행은 디지털 역량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교에 디지털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
- **(주요내용)** 금융실무와 학문이론을 결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금융그룹 내 직원 중 등록자를 받아 석사학위 수여
  - 4학기 동안 디지털 금융과 금융보안, 블록체인·빅데이터분석 이론과 실습, 디지털 전략 프로젝트 수행·구현 등 다양한 분야 학습
- **(성과)** '17.9월 개설 이후, 30명이 디지털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



#### ④ (중장년 재취업) 은퇴설계교육 및 퇴직자 재채용 제도 실시

- 창업·재취업 지원을 위한 은퇴설계교육 실시 및 퇴직 은행원 재채용 제도 실시(내부통제, 현장점검 업무 수행)

##### 주요 사례 ①

- (개요) 신용회복위원회 “서민금융 종합상담역” 채용
- (주요내용) 만55세 이상 15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과중 채무자 금융상담, 채무조정 전 단계의 종합신용상담 등 업무수행

##### 주요 사례 ②

- (개요) 상호금융권 “컨설팅역” 채용
- (주요내용) 10년이상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상호금융 조합 건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취약부문 현장점검 및 내부통제 지도

#### ⑤ (주52시간제) 노사합의 등에 따라 주52시간제의 법정 시행시기 (19.7월)보다 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시행 중

- PC-OFF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,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
- 회의 및 근무문화를 개선하고,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

##### 주요 사례

- (개요) ○○은행은 법 시행일(19.7.1)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 추진 로드맵(18.9월)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추진
  - \* 공감대 형성(18.10월)→시범실시(18.12월)→시행 1단계(19.6월)→안정(19.7월)
- (노동시간 단축 추진 주요내용) '18.9월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, 노사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
  - 조간회의를 폐지하거나 영업종료 후 간단히 하도록 하고, 임원회의 개최 시간도 8시에서 9시30분으로 조정
  - PC사용시간을 제한(오전 8시40분 ~ 오후 6시에만 PC 사용 가능)
  - 노사공동 점검반을 운용, 월 1회 이상 부당 근로 예방 점검

**⑥ (성차별 해소) 여성 고용문화 개선 및 성차별적 요인 해소 노력**

- 은행경영공시 항목에 여성 임직원수, 여성 신규채용 비율을 구분기재하도록 하여 여성 고용문화 개선을 유도
- 여가부와 「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」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여성임원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차별적 요인 해소 노력

\* (금융권 7개사) KB은행, SC제일은행, 우리은행, 메리츠자산운용 KB증권, 우리카드, 우리FS

**⑦ (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) 채용 우대 및 직무개발 등 실시**

- 장애인·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채용 가산점 부여, 특별채용 실시 및 은행권 취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훈련 과정 운영
- 사무지원 업무 이외 디자인, 전화상담 업무 등 신규 직무 발굴

**주요 사례**

- (개요) 은행권은 여성·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
- (주요내용) 여성 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, 출산·육아 장려,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, 업무개발 등을 진행
  - 여성 근로자 비율 확대 및 신규 여성 채용 확대
  - 임금감소 없는 임신·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, 육아휴직 장려
  -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, 신규 직무개발(사무보조 등)

## [2] 실물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

### ①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

- **(대출규모)** '17.1월~'19.5월간 고용우수기업\*에 5.3조원 자금공급

\* ①고용부, '100대 일자리 으뜸기업' : 노사단체, 교수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 중 선정

②지자체, '고용우수기업' : 지자체 조례 또는 훈령에 근거, 심의위 거쳐 선정

- **(지원제도)** 금리 우대, 별도 대출상품 시행 등 지원제도 운영

#### 주요 사례

□ **(개요)** 은행권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중

□ **(주요내용)** 고용노동부(또는 지방자치단체) 선정 **일자리창출 우수기업, 세제상 고용확대기업,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** 등에 우대 제공

- 신용평가시 비재무모형 기준에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대출심사
- 일자리창출 요건 충족시 여신지원한도 및 금리, 수수료 우대

### ②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

- **(대출규모)** '18년중 창업기업\*에 대한 신규 대출 취급액은 53.5조원

\*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기업(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)

- '16년에는 대출규모가 다소 감소했으나, '17년 이후 혁신·창업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을 추진한 결과 증가추세 지속

\*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취급액(조원) : ('15) 52.3 ('16) 47.5 ('17) 49.8 ('18) 53.5

- **(지원제도)** 맞춤형 대출, 금리 및 보증료 우대, 경영컨설팅 등 지원

#### 주요 사례

□ **(개요)** 은행권은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중

□ **(주요내용)**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후 7년 이내인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우대 제공

- 청년창업자의 혁신형 창업기업 대상 초저금리 대출 제공
- 보증기관 보증료 및 보증비율 우대

③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활동으로 일자리창출 지원(~20년, 1.05조원 출연)

- ❶ (일자리펀드)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위해 창업기업, 해외진출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('18~20년, 3,200억원)

\*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3,200억원에 민간투자자금 4,800억원을 매칭(40:60)하여 총 8,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

- ❷ (협약보증) 신·기보 특별출연을 통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\* 등에 대해 협약보증 지원('19~'20년, 1,000억원)

\* 고용창출우수기업, 유망창업기업, 혁신성장분야 기업,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등

- ❸ (성장사다리펀드)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초기 스타트업,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('13~'19년, 3,500억원)

- ❹ (금융산업공익재단) 6년간 노사합의를 통해 「금융산업공익재단」을 설립('18.10월)하고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('19~'20년, 2,000억원)

- 향후 일자리창출 등 사회공헌활동\*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

\*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('19.9.16.~10.31.)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,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재취업 활성화 등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예정

**【은행권 공동 주요 사회공헌사업 추진 계획(요약)】**

사회공헌사업	출연처	출연금액
은행권일자리펀드	은행권청년창업재단	3,200억원
일자리기업 협약보증	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	1,000억원
성장사다리펀드	은행권청년창업재단	3,500억원
금융산업공익재단 설립	금융산업공익재단	2,000억원
기타		800억원
계	-	10,500억원

④ 개별은행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

- ① (창업지원)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은행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자·교육·보육 등 실시

주요 사례

- (개요) ○○은행은 지역 내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
- (주요내용)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
  - 업무공간제공, 경영컨설팅, 금융지원
  -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, 기타지원

- ② (취업매칭)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간 매칭, 해외취업 지원,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

주요 사례

- (개요) ○○은행은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역량제고부터 취업까지 전방위적 지원
- (주요내용) 은행재단-KOTRA-한국외국어대학교가 민·관·학의 전문성을 집약하여 해외취업지원
  - 국내합숙교육
    - 현지언어(베트남어, 일본어) 교육, 실용영어, 현지 문화 특강, 직무교육
  - 해외현지교육
    - 일상회화교육, 직무교육, 필드트립(우수기업 탐방, 주요경제단체 방문 등)

- ③ (취약계층 취업지원) 장애, 질병으로 소외된 청년 및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 직업교육을 지원

주요 사례

- (개요) ○○은행은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
- (주요내용) 취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 수당 지원
  -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여성 대상 교육참여수당 지급
  - 특별사례관리자를 선발하여 교육참여 수당 확대, 일자리 매칭 지원 강화

### (1) 일자리 중심의 정책금융기관 관리체계 마련

□ 경영평가 개편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 확립

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 배점 개선('17년)

- (1) 일자리 자금공급 관련 평가배점 확대 : 2점 → 7점
- (2) 일자리 기업을 지원하는 신규상품 출시시 최대 2점 가점 부여
- (3) 자금지원의 실제 일자리창출 성과(Output)를 측정

② 기관 간 '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실적 산정기준'을 통일하여 평가의 엄정성·객관성 제고('19년)

\* 일자리창출기업 실적 기준 :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②정부기관 인증기업, ③고용확대로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

### (2) 창업·주력산업·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① 창업·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
○ 고용효과가 높고 미래 성장성이 밝은 창업·벤처, 신성장부문 기업 등에 대해 투자·융자·컨설팅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

- (투·융자) 산은 성장지원펀드(3년간 8조원) 등을 통한 투자 지원, IBK 성공창업·혁신성장 비전기업을대출 등을 통한 대출 공급

- (IR·컨설팅) IR 등을 통한 투자자금 유치기회 제공(KDB 넥스트라운드), 업무공간 제공·멘토링 등 지원(IBK 창공(創工))

※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사례 : 마켓컬리

- 신선식품 배송·유통 서비스 제공 벤처기업으로, 산은의 KDB 넥스트라운드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6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
⇒ 최초 투자시('16) 40명 → '19년 280명으로 증가

## ② 조선·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- 조선·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부문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,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·운영자금 등 지원
  - (시설자금) 「산업구조 고도화」(산·기은), 「시설투자 특별온렌딩」(산은) 등 '19.1~8월 중 3.2조원 공급 (3년간 10조원 이상 계획)
  - (운영자금) 「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」(산은)을 통해 '19.7~8월 (2개월)간 0.5조원 지원 (총 2.5조원 지원 계획)
  - (취약기업) 「밸류업 프로그램」(신보) 통해 '19.6~8월중 37개 기업에 컨설팅·보증공급(83억원) 등 지원 ('19년중 60개사 목표)

##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우대금융 지원

-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중소·중견기업 등에 대해서 금리혜택 등을 제공하는 우대금융 프로그램 운용(금리감면 최대  $\Delta 0.5\%p$ )
- 산은·기은·수은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'19.1~8월 중 4.3조원 규모로 자금공급 ('22년까지 매년 공급액 확대 계획)

### [3] 지역형(광주형·대구형) 일자리 사업 지원

- 제조업 불황 등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지자체-금융기관-勞使간 상생협력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“지역형 일자리 사업” 지원

- ❶ (광주형 일자리)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('19.1.31)을 체결하고, 산은의 지분투자자로 경형 SUV 생산공장(광주글로벌모터스) 설립

⇒ 직접고용 1천명(정규직) 및 간접고용 포함 7,600명 일자리 창출

- ❷ (대구형 일자리) 이래AMS 노사, 대구시, 산업·하나·대구은행, 경사노위는 자동차 부품업체 이래AMS 지원에 합의

⇒ 270개 협력업체의 4만 3천여명 고용 안정 및 신규 일자리 1,200명 창출